

‘인쇄’ 2/4분기에도 경기호전 어렵다

2/4분기에는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인쇄업종은 1/4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업종별 평균 BSI가 97(전분기에는 88)을 기록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쇄업종은 전분기 110에서 105로 하락했다.

BSI는 기업들의 실물경기 체감지수다. 2/4분기 경기체감지수가 100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 전망을 남긴 데는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이 큰 몫을 차지했다.

항목별 BSI 수치를 보면 100을 넘는 항목이 생산설비가동률, 생산량, 내수 등 11개 종목 중 6개 종목에 이르러 100을 넘지 못한 항목보다 많았다. 하지만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해 응답 기업의 절반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해 1/4분기 보다 사정이 더 악화됐다.

내수와 수출, 생산설비가동률, 생산량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표시한 기업체가 많은 만큼 전쟁 위기만 해결된다면 2/4분기는 기대치보다 실적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참조>

한편 내수(105)와 수출(102) 양 부문 모두 1/4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량(109)과 설비가동률(105)도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판매가격(87), 자금사정(88), 원재료가격(50) 등의 경영여건이 기준치인 ‘100’에 못 미치고, 경상이익(80)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설비투자(107)와 고용(102)은 전분기(각각 105, 101)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2/4분기에 경기 1/4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가 27.3%(351개사)인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업체는 30.2%(389개사)에 달해 악화를 예상

한 업체가 많았으나, 지난 1/4분기(호전 22.2%, 악화 34.0%)에 비해 악화 예상업체는 줄어든 반면, 호전 예상업체

<표 1> 항목별 BSI 동향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분기 / 항목	2/4분기	1/4분기
전반적 경기	97	88
생산설비가동률	105	94
생산량	109	94
내수	105	90
수출	102	99
제품판매가격	87	86
제품재고	91	92
원재료가격	50	60
경상이익	80	81
자금사정	88	85
설비투자	107	105
고용	102	101

체는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북한 핵 문제, 가계부채 증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안 해소 및 기대감, 대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한상회의 BSI전망지수 추이를 보면 작년 1/4분기에 '80'으로 저점을 형성한 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작년 2/4분기에 정점(133)을 형성하였다. 이후 3분기 연속 하락(1/4분기 '88')한 후 이번 2/4분기(97)에 다시 상승세를 반전되었다. <그래프1 참조>

한편, 1/4분기 BSI 실적치는 '75'로 2분기 연속 하락(전 분기 '96')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부진

<표 2> 업종별 경기전망(BSI)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업종	2/4분기	1/4분기
전자 반도체	117	96
의료/정밀기기	113	92
비금속광물	112	81
컴퓨터/사무기기	111	91
가족/신발/가방	108	93
조립금속	107	93
전기기계	106	74
출판/인쇄	105	110
가구/기타	103	80
자동차	100	91
고무/플라스틱	99	96
철강	98	81
음식료	97	88
의복/모피	91	83
기계	89	86
섬유	85	96
조선	84	90
석유화학	84	79
목재/나무	82	116
펄프/종이	80	67
정유	80	60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중국·동남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자/반도체(117), 컴퓨터/사무기기(111), 조립금속(107) 등의 경우 침체를 벗어나 호전으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소비 둔화와 원화 강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수출여건 악화로 석유화학(84), 조선(84), 섬유(85), 기계(89), 철강(98) 등의 업종은 금번 2/4분기 경기가 1/4분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2 참조>

기업규모별로는 생산량과 설비가동률의 경우 대기업(각각 113, 107)과 중

소기업(각각 108, 105)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상이익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각각 92, 79) 모두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자금사정은 대기업(101)은 호전될 것으로, 중소기업(87)은 위축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설비투자과 고용은 대기업(각각 115, 102)과 중소기업(각각 106, 102) 모두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 참조>

<표 3> 기업 규모별 경기전망

(단위 : BSI, 전분기 대비)

규모/항목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설비가동률	105	107	105
생산량	109	113	108
내수	102	107	104
수출	102	105	102
제품판매가격	87	94	86
제품재고	91	88	91
원재료가격	50	57	49
경상이익	80	92	79
자금사정	88	101	87
설비투자	107	115	106
고용	102	102	102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1/4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이웅우 기자 photoyw@print.or.kr>

<그래프 1> 최근 제조업 BSI 추이

